



레드카펫 없으면 어때?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

‘씨네마 광주’ 작은 영화제 잇따라 열려



최성욱 감독의 다큐 '베리타스를 찾아서'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의 '와즈다'

광주독립영화제

24~26일 G시네마 '눈뜨GO 버티GO 보라GO'



올해로 3회째 행사를 맞는 광주 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조대영)는 지역의 독립영화 활성화와 독립영화 감독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24~26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개막한다.

'눈뜨GO 버티GO 보라GO'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상영작은 모두 43편이다. 개막작은 5월 광주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이순화 감독의 '1995년 12월 21일'. 영화 제목은 '광주학살'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은 날에서 따왔으며 80년 이후 반복되는 역사의 비참함에 주목하고 있다.

'5월 이야기'책선에서는 문순태 작가의 동명 단편을 원작으로 한 김래원 감독의 '꽃피는 철길', 5·18민중항쟁 기념제3회 서울 청소년백일장에서 대상을 수상한 정민경의 시를 원작으로 한 조재형 감독의 '그날', 선준환 감독의 '나는 계엄군이였다', 김지아 감독의 '꽃밭'을 만날 수 있다.

'광주1318'책선에서는 청소년 영화동아리인 '동그라미'가 관소리를 주제로 만든 '순백', '흔하하하 숨바꼭질', '환상속의 그대' 등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13편이 상영된다. 또 광주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한 '독립영화제작워크숍 제2기'에 참여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완성한 김이향 감독의 '어느 주말'도 만날 수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책선인 '광주의 배우'는 광주 독립영화에 꾸준히 출연한 배우를 집중 조명하는 코너다. 올해는 지역 극단에서 활동하며 '뭐라도 하기에 너무 더운 날씨' 등에 출연한 임성재의 작품 4편을 만난다.

폐막작은 지난 2011년 '베리타스 :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을 만들고 세상을 떠난 고(故) 신은정 감독을 기록한 최성욱 감독의 다큐 '베리타스를 찾아서'다.

신 감독의 동료이기도 했던 최 감독은 추모 문집 '바다, 경계를 횡단하는'을 출간하는 등 신 감독을 기억하는 작업을 꾸준히 펼쳐왔다. cafe.daum.net/indif. 문의 070-8236-1895.

뚜렷한 개성을 가진 작은 영화제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독립영화감독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영화제도 있고, 노인들이 직접 꾸러나가는 영화 축제도 있다. 여성을 주제로 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상영하는 영화제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에버그린영화제

29일~31일 빛고을노인타운 노인들 작품 제작



광주에버그린영화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모임인 (사)광주영상미디어 클럽이 주최하는 행사다. 지난해 첫행사를 치렀으며 올해는 29~31일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 공연장에서 영화제를 갖는다.

개막작은 버스터 키튼의 무성영화 '셜록 주니어'로 영화 상영과 함께 무성영화 전문 밴드 'S.O.M.'이 라이브 연주를 펼친다.

노인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2014 광주영상미디어클럽 특선'에서는 빛고을 건강타운의 일상을 기록한 다큐 '건강타운의 하루', 노복순·이연 부부가 직접 출연하고 함께 만든 '산책', 김승재 감독의 '딸'과 '어머니 안돼요', 윤니버스 드라마 '화양연가' 등이 상영된다.

시니어 영화제 수상작 초청전도 마련돼 있다. 제 8회 정읍전국실버영화제 대상 수상작 '엄마의 반지', 제2회 서울 노인영화제 대상 수상작 '나의 땅 초 이야기', 3회 서울노인영화제 최우수상 수상작 '사랑해요 아버님' 등이 상영된다.

해외영화 초청작으로는 유쾌한 인도 영화 '용감한 자가 신부를 데려가리', 클로드 지디 감독의 '마이 뉴 파트너', '굿바이 레난' 등을 만날 수 있다.

http://gisff.org. 문의 062-225-3393.

광주여성영화제

11월 5~9일 G시네마 '눈물 너머' 주제 30편 상영



평범한 아줌마들이 의기투합해 마련한 광주여성영화제는 올해 벌써 5회째를 맞았다. 11월 5일~9일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

이번 영화제의 주제는 '눈물너머'. 굴곡진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이 결코 개인적일 수 없음을 일깨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서로 이끌어 주는 삶을 제시하는 영화 30편을 상

영한다.

개막작은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인권을 다룬 하이파 알 만수르 감독의 '와즈다', 폐막작은 청각장애인 가족의 삶을 앵글에 담은 이길보라 감독의 다큐멘터리 '반짝이는 박수 소리'다. '정소녀 그들만의 이야기', '영화, 노인을 말한다', '올해의 단편 특선(국내·해외)' 등에서는 영화배우 문소리가 만든 '여배우', '열차에서 만난 여자' 등 모두 15편의 단편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흘러넘치 비누가 출연한 '천번의 굶나잇', 뉴욕을 배경으로 홀로 서기에 나선 당찬 여성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린 '프랑스 하', 레즈비언 커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담은 다큐 '퍼스트 댄스', 칸영화제에 초청받았던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 세계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한 이수진 감독의 '한공주', 만신 김공화의 삶을 담은 박찬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신' 등도 상영된다.

또 '밀양, 반가운 손님' 상영 후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을 펼치고 있는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돼 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행사 현장에는 관객 카페와 4~7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방을 운영하며 머그컵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현재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cafe.daum.net/wffig)에서 선착순으로 영화 관람 맛보기 예약을 받고 있으며 후원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도 진행 중이다. 문의 062-515-6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밤 적시는 대금 소리

대금 연주단 '여울림' 23일 빛고을국악전수관

대금 연주단 '여울림'(단장 채광자)이 광주시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 열린국악한마당에서 공연을 갖는다. 23일 오후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물심일여(物心一如)'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전통과 창작곡을 아우르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인다.

1부에서는 정악 '경풍년', 정가 '우', '서용석류 대금산조'를 들려주며 2부에서는 민요를 편곡한 '쾌치나 칭칭 나네', '옹헤야', '빛고을 강강수월래'를 연주한다. 또 김미혜·김다경씨가 '신사철가', '내고향 좋을시구' 등 신민요를 부른다.

지난 2008년 창단한 여울림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으며 국악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단체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학춘추' 가을호 김우진 생애와 작품세계



지역에서 발간되는 계간 '문학춘추' 가을호(통권 88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극작가 겸 수필 평론가로 한국문학의 지평을 열었던 김우진(1897~1926)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특집으로 다뤘다. 허소미 시인이 '김우진의 시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그의 작품에 드러난 새로운 세태에 대한 동경과 한국 근대연극의 선구자로서의 다양한 활동 등을 조명했다.

기획특집으로 1980년대 전남문단을 다시 돌아보는 좌담회를 마련, 전남문단의 오늘과 내일을 진단했다. 문학관기행에서는 탁현수 수필가가 '매일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의 문학 혼이 숨 쉬는 이효석문학관을 탐방, 그의 문학세계와 삶을 들여다보았다.

이밖에 성환조·이영식 시인의 시와 이지연·조주환 시조시인의 시조, 류인석·임인택 수필가의 작품 그리고 제9회 다형 김현승시인 문예작품공모 당선작 등이 실렸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올제 클래식 '난중일기' '정비록' '쇄미록' 발간

동서양 고전을 권당 2900원에 만날 수 있는 '올제 클래식' 12번째 시리즈로 임진왜란과 관련한 기록 4권이 발간됐다. 잘 알려진 '난중일기' '정비록'과 더불어 '쇄미록 1·2'권을 번역했다.

난중일기는 총무공 이순신이 임진왜란 당시 쓴 난중일기로 국보 제7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다. 이번 시리즈로 출간된 번역본은 노산(齋山) 이은상이 옮긴 것이다.

정비록은 서예 유성룡이 남긴 임진왜란 회고록이다. 한일 국제교류 연구자인 구지현 연세대 박사가 번역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처음 번역 소개되는 쇄미록은 조선 중기 선비 오희문이 임진왜란 당시 전쟁을 피해 전국을 떠돌면서 남긴 피란기다.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 등을 역임한 이민수씨가 옮겼다.

전국 교보문고 매장과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올제 홈페이지(www.olje.or.kr)에서 e북 형태로 제공된다. /연합뉴스

남한 노총각과 북한 꽃미녀의 예측불허 결혼일기

박수홍 ♥ 박수애 양준혁 ♥ 김은아

매주 금요일 밤 11시

에정통일!

TV 조선

양은아

JUST MIDNIGHT